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집회는 김철수 장로님 은퇴 및 김인걸 장로님 취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4월 2일(수) 저녁 집회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목요 모임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화요 모임은 4월 8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4월 4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빌립보 속 식사준비 - 엠마오 속

다음 주일 오후 모임은 선교회별 월례회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교회가 지난 목요일(27일)에 끝난 제28회 서울 연회에서 제1회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청파교회는 다’를 적어서 게시판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육식을 줄여 보십시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던 아마존 밀림의 38%가 소 사육에 필요한 목초지 개발 때문에 집중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봄날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반역의 충동으로 꿈틀거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새 마음을 심어 주십시오.

자애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소연한 세상에서 주님의 참 뜻을 밝히 증언할 용기를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주십시오. 외로운 이들의 삶에 그늘을 몰아내는 한 점 햇살이 되게 해주시고, 황량한 세상을 푸른 목초지로 바꾸는 신선한 물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권미숙 김용진 박효선 안정숙 오진훈 노순옥 이성운 임승동 백혜숙 정복순 오자영 최윤희 정은영 홍복선

월정헌금:

김성자 윤성종 김윤정 이병철 김현진 하정석 이명희 권 순 윤정화

감사헌금:

유영남 박홍재 김은정 김훈동 유경순 한상익 정영선 정미경 이승영 이지은 김주희 김주현 김수은 민동혁

생일감사헌금: 윤희준 박혜경

100주년 기념헌금 :

장민숙 박시내 유증희 이재문
(100주년 헌금 누계 : 168,835,000원)

부활절헌금 : 11,148,000원

	장혜숙	장혜숙	조순덕	연합수회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임정자	임정자	이은옥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안정숙	박애순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문복순	
	박효선	허정운	김정애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백혜숙	정옥영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김명희	
	이영란	박미영	배삼순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상처 4

-- 김광규

소나무 숲길을 지나다
 솔잎내 유독 강한 나무를 찾으니
 등치에 깊은 상처를 가진 나무였네.
 속내를 내보이는 소나무에서만
 싱싱한 육신의 진정을 볼 수 있었네.

부서진 곳 가려주고 덮어주는 체액으로
 뼈를 붙이고 살을 이어 치유하는지
 지난날 피맺힌 사연의 나무들만
 이름과 신분을 하나 감추지 않네.
 나무가 나무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네.

나도 상처를 받기 전까지는
 그림자에 몸 가리고 태연한 척 살았었네.
 소나무가 그 냄새만으로 우리에게 오듯
 나도 낯선 피를 흘리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네.
 우리들의 두려움이 숲으로 돌아가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땅을 적시는 이슬처럼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심으며 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 명령을 힘써 받들겠습니다. 무능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거짓과 위선과 죽음의 세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주님 영의 회오리바람으로 우리를 흔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뜻 받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장로 은퇴 및 취임 감사예배	기도의 밤
집례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이명희 집사 구성실 장로	인도자 정경례 권사

3월	영접위원	김철수 조문규 최철수 하정석 박애순 진정숙
	헌금위원	한완식 박홍재(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매일 저녁

기도는 노래처럼 신성하고 치유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기도는 신뢰며 증명이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간청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 상태와 고뇌를 이야기할 뿐이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듯이 자신의 노래와 고마움을 흥얼거린다. 파사의 교회 마당에 오아시스와 노루들 한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축복 받은 은자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나무와 동물들도 기도한다. 훌륭한 화가들의 그림에서는 나무와 산도 빠짐없이 기도한다.

경건한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러한 기도에도 도달하기까지 먼길을 가야 한다. 그는 양심의 연옥을 안다. 그는 몰락에 내재한 죽음의 가시를 안다. 그는 모든 종류의 분열, 괴로움, 절망을 경험했다. 이 길은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가시밭길에서 찾아 헤맨 축복이 얼마나 소박하고 천진난만하며 자연스러운지를 알고는 놀라워한다. 그러나 가시밭길은 의미가 없지 않았다. 집으로 귀환한 사람은 항상 집에 머무른 사람과 다르다. 그는 더 내적으로 사랑하며 정의와 망상에서 더 자유롭다. 정의는 집에 머무른 사람들의 덕목이다. 이것은 오래된 덕목이며 원시인들의 덕목이다. 그 후대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러한 덕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행복과 신뢰라는 덕목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중략)

매일 저녁 그대는 자신의 하루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루가 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행동과 충실함으로 인해 기뻐했는지,
걱정과 후회로 인해 낙담하지나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대는 그대가 사랑한 것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중요와 불의를 그대 앞에 조용히 고백해야 한다.
그대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며
그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침대에 두어서는 안 되며
영혼의 모든 근심이
멀리서 천진난만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화된 내면에서 자신 있게

그대는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의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라, 그러면 그대는 순수해지면서
황금빛 꿈들이 위로하듯이 손짓하는
시원한 잠의 우물을 깊이 들이마시고
새로운 날을 명쾌한 감각을 지니고
영웅과 승리자로서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신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모든 내적인 힘들의 가장 내적인 통합으로, 그리고 관용과 최상의 것과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에 대한 긴장된 의지로 체험하는 사람은 오늘의 기도에서 평생 지속되는 힘을 길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게으른 것을 물리치고, 노력 중인 것을 끌어올리고, 대단히 일반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소소한 관심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동과 명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며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동시에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수 없다는 것을 명상자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일은 번갈아 이루어지며 이러한 리듬과 양극성이 곧 삶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맹렬한 행동을 위해 관찰을 경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켜보았다. 그러한 행동은 공허한 역동성의 승배와 위험한 삶의 찬미, 간단히 말해서 히틀러와 무솔리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노래는 비록 더 아름다운 목소리에 의해 온화하게 불러진다 하더라도 나에게서는 아무 것도 전해 주지 않는다.

여인숙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대는 웃는다.
그대가 그것을 보고서
침묵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
나는 그것을 소년 시절에 배웠다—
나는 그대의 눈에서
그대가 나를 이해했다는 것을 읽고 싶다—
그대에게는 대체 한 번도 어린 시절이 없었는가?

--헤르만 헤세, <<영혼의 수레바퀴>> 중에서